| 현불 논단 |

승가 인재 등용의 조건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주요종단 승려인사 장벽 존재
문중과 계파 중심 인연 강조
문중은 가풍 대신 재원 승계
계파는 선거 당락에 큰 영향

이제는 실적주의 강화가 필요
개인적 인연이나 당파성 넘어
업무수행 능력 기준에 방점을
공개경쟁으로 부정도 줄어든다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승려인사에는 두 가지 장벽이 현존한다. 문중과 계파가 그것이다. 사회 일반조직의 인사에 혈연, 학연,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면 승가의 인사에는 문중과 계파가 주로 작용한다. 이는 한국불교의 인사가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정실주의(情實主義)는 말 그대로 정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써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정이 인사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엽관주의(獵官主義)는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로 선거 등에서 공을 세워 직위를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중이 정실주의의 원인이라면 계파는 엽관주의의 원인이다.

본래 절집의 문중(門中)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수행가풍을 전승하는 맥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경제적 · 물질적인 지원이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세속적인 가족의 개념이 강하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유교식 집안 운영 원리가 불교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문중이 수행가풍의 전승보다는 경제적 · 물질적 승계라는 유교의 문중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교구 내 말사주지 소임을 둘러싸고 강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문중에 의한 인사 문제는 총무원장의 선출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총무원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문중의 집단행동과 문중 간 연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의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도 문중에 대한 고려가 인사의 주요 요소가 되어있다.

한국불교에서 엽관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종책모임' 이라고 불리는 계파(系派)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조계종의 계파는 과거 문중의 힘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사에 있어서 문중의 의사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비하여 이제는 계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소위 개혁불사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종단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앙종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중앙종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계파가 종책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계파는 이후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 선거에서 세를 규합하여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보를 보여 왔다.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계파 내의 기여도에 따라 중앙과 교구에서 주요 소임에 임명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문중과 계파, 즉 정실주의와 엽관주의가 스님 인사에서 주요 기준이 되어 있는 한국불교에서 실적주의의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실적주의는 정실주의나 엽관주의에 대한 반(反)명제로서 능력에 바탕을 인사관리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적주의는 조직구성원의 등용이 개인적 인연이나 당파성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적주의의 강화란 소임자의 인사 기준을 기존의 문중과 계파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적의 반영 수준을 보다 더 높이자는 것이다.

향후 한국불교에 있어서 실적주의가 도입되어 실천된다면 우선, 능력 있는 모든 스님들이 소임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종단 내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개경쟁과정에서 무자격자나 정치적 부정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종무행정 능률의 향상과 소임자의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중과 계파를 벗어나 능력과 실적에 의하여 등용된 소임자는 정치적 중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중과 계파 이익이 아닌 대중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청년 포교, '공감 · 멘토링' 필요

2018년 3월 26일 대불련 홈페이지에는 작은 공고 하나가 올라왔다. 'KBUF 불담(佛談)기자단 1기 모집' 이었다. 불자 대학생들을 위한, 불자 대학생들에 의한, 불자 대학생의 언론기구로서 불교뉴스를 다루겠다는 당찬 포부로 불자대학생 기자단이 출범한 것이다.

발간 회수는 연 2회. 매학기마다 한차례씩 불담기자단 학생들이 취재하여 만든 〈캠퍼스108〉은 곧이어 대학가에 배포됐다.

불교동아리를 소개하는 변변한 안내책자조차 없던 대학포교 현장에서 〈캠퍼스108〉은 제2의 대학생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게임에서 불교를 찾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불성과 삼독' 등 대학생의 시선에서 또래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찾아 다뤘다. 기성 기사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구성에도 대학생 특유의 재기발랄한 모습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담기자단은 모자란 취재와 사진촬영 등의 요령은 불교계 언론사 선배들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배웠다. 발간에 드는 비용은 대불련 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 등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 끝에 이번 9월 2일 〈캠퍼스108〉 3호가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캠퍼스108〉8 3호로 총 발간 부수는 2만 2000부를 넘어섰다. 학교당 200부씩 학기 시작과 함께 각 동아리방에 〈캠퍼스108〉은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대학포교는 부흥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대 불교학생회를 비롯해 서울교대 불교학생회 등 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새롭게 창립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 이면에는 이와 같은 대학생들과 각 대학 동문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

흔히 우리는 청년 포교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 포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108〉의 2만부 발간 돌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먼저 '공감' 의 중요성이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같은 대학생들인 불자대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세대의 시선에서 본인들도 필요로 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멘토링' 의 중요성이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기성세대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멘토링이 있다. 이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담기자단의 활동은 〈캠퍼스108〉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카드뉴스를 비롯해 유튜브 영상제작 등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종단이 진행하는 청년신행대축제에서 유튜브 공모전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계획도 세웠다. 지금은 신문형태로 발간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학생 불자들에게 전달 될 것이다.

최근의 대학생들은 사찰을 찾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을 뿐, 여전히 불교의 가르침에는 열광한다. 1960년대 성철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1970년대 대각사에 모였던 청년들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불교, 명상을 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대학생들과 공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으로 다시 한 번 대학불교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社 說

불교 비지정 문화재 보존 관심을

문화재청이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18.1% 늘어난 1조 6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문화재청의 다양한 새해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것이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비롯해 관리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폐사지 조사를 비롯해 다량 유물 소장처 사업 활성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 배정은 지정문화재 외 다량의 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배정이 정작 불교계에 투입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국가 문화재 예산 분석을 보면 불교계는 개인이나 일반단체, 국가보다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현저히 낮았다.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는 결국 문화재청을 통한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관의 관리능력을 보강할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난 문화재 예산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배정해 온 국유문화재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았던 사유문화재에 대한 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보존에 배정돼야 한다.

아직도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정부의 문화재 예산에 적지 않는 부분이 국가 소유인 궁능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월 궁능유적본부 출범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출범으로 궁능 보존관리 · 활용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72억원 대폭 늘어난 1302억원이 편성됐다. 궁능 보존과 활용만큼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는 신경을 쓰길 바란다.

태고종, 종도 혼란부터 해소해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당선 이후 총무원사가 아닌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온 호명 스님이 9월 시작과 동시에 서울 사간동 총무원사에 진입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제26대 편백운 스님 집행부와 제27대 호명 스님 집행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두 집행부는 현재 종법과 사회법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종법상으로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을 거치면서 호명 스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6대 · 27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호명 스님의 총무원사 진입 이후 각 집행부는 꾸준히 대화 창구를 마련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대립으로 인해 그 피해가 종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26대 · 27대 집행부는 서로 종도들을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당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종도들은 둘로 나뉜 집행부를 바라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헤매고 있다. 게다가 한쪽 집행부를 따르면 반대편 집행부에서 이를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종도들의 혼란은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결국 이로 인해 종도들은 사태를 관망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각 집행부도 사회법 판결만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굳어졌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회법 판결 이후 종단 정상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양 집행부는 종단의 존재 이유가 종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공고

- 사찰명 : 무유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64
- 주 지 : 호산 (속명 : 정호진)
- 승 번 : 101-63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영주사
- 주 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241번지
- 주 지 : 용오 (속명 : 한득용)

위 사찰은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